

ESG Wannabe

SK증권 스마트시티추진실

조선/운송/유통 유승우. 3773-918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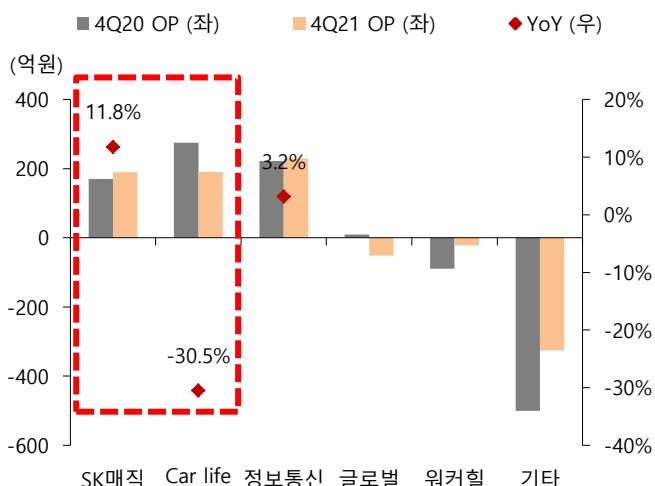


전기차 충전기업 투자로 ESG 매력 더욱 부각되는 SK네트웍스

● SK네트웍스 4Q21 실적 악화되었지만 오히려 공격적인 전기차 투자 이어가는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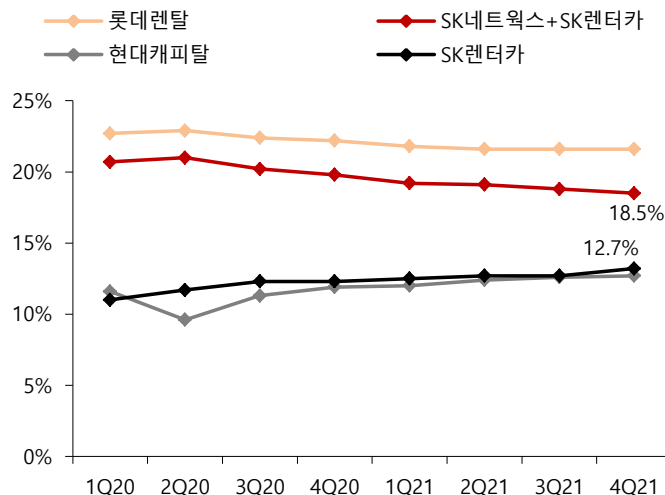
- SK네트웍스는 렌탈사업인 SK매직과 SK렌터카를 자회사로 두고 양대 성장사업으로 분류해 키워가고 있음
- 그 중 SK매직은 4Q21 OP 190억원(YoY + 11.8%)을 기록해 주력사업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음
- 4Q21 말 기준 SK매직 렌탈 계정은 국내 221만개로 주요 가전제품 판매량이 감소했지만 안정적인 증가세 보여줌
- 한편, SK렌터카는 SK네트웍스의 Car life 실적으로 연결되는데 Car life는 4Q21 실적에서 OP 191억원을 기록해 YoY - 30.5%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고 이 중 렌터카 OP는 60억원으로 YoY - 62% 감소함
- SK렌터카 다이렉트 매체 광고비 및 내부 프로세스 개선 비용이 반영되었으며 고객센터 외주화에 따른 전별금 등 일시적인 판관비 증가로 4Q21 실적 악화를 보였으나 2022년 실적은 호조세가 이어질 전망
-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SK네트웍스는 전기차 완속 충전사업자 '에버온'에 100억원 규모 투자 의사 밝혔음
- 에버온은 국내 3대 전기차 완속 충전기 운영 업체 중 하나로, 현재 전국 1만여 개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번 투자금으로 2023년까지 25,000대 이상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장할 예정임
- 렌터카 시장 1위 업체인 롯데렌탈과 근소한 점유율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EV 렌탈 시장 인프라 구축부터 선점하며 중장기적 점유율 상승 및 추가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까지 ESG 경영으로 풀어나가는 중임

SK네트웍스 주력인 SK매직과 Car life의 이익은 견조한 성장 중



자료: SK네트웍스, SK증권

SK렌터카의 M/S는 점차 확대 중



자료: SK렌터카, SK증권



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본 보고서의 발간시점에 해당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종목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(6개월 기준) 15%이상→ 매수 / 15%~15%→ 중립 / -15%미만→ 매도